



# 문화유산 등 세계 건축물 건축미·역사·사회성 소개

문화적 유산을 비롯하여 근대의 작품 등 세계적인 건축물에 대해 전문적인 건축가의 시각으로 아름다운 건축미와 역사성·사회성을 사진을 곁들여 소개한 해설서로 죽음의 공간, 신의 공간, 삶의 공간, 인간의 공간 등 4부로 되어 있다.

- 편집자 -

##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

· 김석철 저

· 창작과 비평사 간

제1부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기자지역에 있는 피라미드는 2600년경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90여기가 있다. 「까따콤베」는 뚜파라는 응회암을 파내 만든 고대 로마인들의 지하 무덤도시로 초기 기독교시대에 지하의 성소역할을 하기도 했다. 단순한 무덤이라기보다 저승의 세계를 이승의 지하에 실현한 형이상학적 공간이다. 인도의 아크라에 있는 「타지마할」은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16세기 무굴제국의 샤흐 자한왕이 열네번째의 아이를 낳다 죽은 아내를 위해 만든 이슬람 예술의 정수이며 세계적 로맨스의 산물이다. 「떼오티우아간」은 1천년 동안 지속하다가 8세기에 사라진 고대 멕시코문명의 대도시 유적지로 대부분이 아직 폐허에 묻혀 있고 신전구역인 죽은 자의 거리만 발굴되고 있다. 「싼 까딸도」 묘지는 이탈리아의 모데나에 있는 납골당으로 금세기 최고의 건축가 중 하나인 알도 로씨의 작품이다.

### 하늘에 제사 지내던 '천단'

제2부의 「아크로폴리스」는 지중해를 제패한 아테네가 국력을 기울여 지은 그리스 문명 최고의 유적

이다. 지금은 네개의 신전과 성채만 남아 있다. 「뻬테온」은 30만이 넘는 신을 모시던 다신교의 도시 로마의 모든 신들에게 봉헌된 그 시대 최고의 국가적 신전이다. 일본의 「이세 신궁」은 일본의 혼이 담긴 가장 일본적인 건축물로 2천년 동안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건축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속성을 배제하고 직각형태의 특유한 양식이다.

「성묘교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인류사상 가장 의미있는 사건의 현장인 골고타 언덕에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의 북서쪽 기독교지구에 위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칼바리의 돌과 예수무덤이 있는 곳에 콘스탄티누스황제가 세운 기독교의 가장 신성한 공간이다. 터키에 있는 「아야 소피아」는 로마가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로 옮기면서 새 수도의 상징으로 만든 천년 비잔틴문명의 대표적인 건축이다. 흘러 넘치는 빛 위에 놓인 돔의 내부공간은 이전 어느 건축에도 없었던 빛의 미학을 성취했다.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반석 위의 돔」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훼에게 바쳤다는 반석 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슴탄 말리크가 이슬람교의 시조 무하마드의 승천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원이

다. 수학적 리듬과 신학의 의미가 건축적 아름다움으로 승화된 건물이다.

「천단」은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신전으로 사회주의 혁명과 문화혁명시대에도 보존되어 온 중국인의 원형공간이다. 「성 바실리 사원」은 크렘린 광장 동남쪽에 위치한 러시아 건축 최고의 걸작이다. 서양건축사의 흐름과 러시아의 문화가 어우러진 건축으로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동적 미학을 성취한 조각적 건축이면서 아름다운 색채로 이루어진 회화적 건축이기도 하다. 형태와 크기가 다른 9개의 탑이 빛어내는 절묘한 조화가 훌륭한 동적 균형의 공간을 창출한다.

제3부 삶의 공간에서 다룬 「포로 로마노」는 고대 로마의 장터로 로마제국의 안보, 종교, 상업의 중심지였지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폴로 이전하면서 폐허가 됐으나 20세기 초 체계적인 발굴이 이루어져서 옛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가르 다리」는 로마인들이 물을 공급하던 다리로 2천년 넘게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심산유곡에 최고의 미술형식인 이 수로는 로마인들의 찬란한 문명을 담고 있다. 「산 마르코 광장」은 베네치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공간이다. 바티칸 광장, 붉은 광장 등이 건물로만 둘러싸인 광장인데 비해 「산 마르코 광장」은 한편이 바다로 열린, 자연과 건축군이 하나가 된 광장이다.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한 알 할릴리'

「한 알 할릴리」는 1천년 전 이슬람인들에 의해 새 수도로 정해진 카이로의 중심 상업구역이다. 한때 1만2천개의 상점을 거느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 현대 쇼핑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라이트가 17년에 걸쳐 세운 현대 미술관으로 이제 이곳은 뉴욕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맨해튼의 문화적 명소가 되었다.

제4부 인간의 공간에서 다룬 「메가리데 성」은 고

대 그리스의 신도시 나폴리의 발상지다. 이 성은 건축 속에 도시의 이미지를, 도시 속에 건축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도시와 건축이 하나가 된 건축 도시를 구현한다.

「자금성」은 중국 베이징의 중심에 자리잡은 명·청조 황제의 궁궐로 중국 건축의 모든 것이 집약된 거대한 건축군이다. 베이징에는 역사도시의 모습이 몇몇 구역 외에는 모두 파괴되었으나 도시적 규모의 자금성이 도성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시로 남아 있다. 「크렘린」은 모스크바 한가운데 있는 성채다. 12세기에 처음 성을 쌓기 시작했으며 지금의 붉은 벽돌성벽은 이반 3세가 이탈리아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건설한 것이다. 그 안에는 근 6백년에 걸쳐 서로 다른 시대의 건축군이 함께 모여 있다. 14세기 초의 우스펜스키성당이 첫 건물이며 1961년 소비에트 전당대회장이 마지막으로 세워졌다.

「산 지미냐노」는 고층의 현대도시의 이미지가 발원했다는, 이탈리아에 있는 탑의 도시다. 도시 전체가 문화재인 「산 지미냐노」는 1천년 전에 시작되어 13~14세기에 오늘의 모습이 거의 완성되었다. 생활공간과 방어목적 그리고 귀족들의 권력의 상징으로 세워졌던 56개의 탑 중 현재 13개만 남아 있다. 「산도리니」는 그리스 미술의 원류인 끼끌라데스 문명의 개화지다. 화산 폭발로 하나의 섬이 여러 개의 섬으로 나뉘어졌으며 지금도 5천년 전의 도시유적이 발굴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가 깃든 에게해 최고의 관광지이기도 한 티라는 바다 위에 솟은 절벽에 하얀 집과 물색 지붕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이다. 마르세유에 있는 「유니뜨 다비파씨옹」은 현대 건축의 거장 르 꼬르뷔지에가 50여년 전에 만든 예언적 고층 집합주거다. 단일 건물 속에 3백37세대의 주거와 시장, 호텔, 유치원, 옥상정원 등 공동공간을 담았다. ㉟

李龍水 (한림대 객원교수)